

2015학년도

1학년 교과통합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416.304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며」



장곡중학교

1학년 교과통합프로젝트 운영 보고서

- 416.304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며」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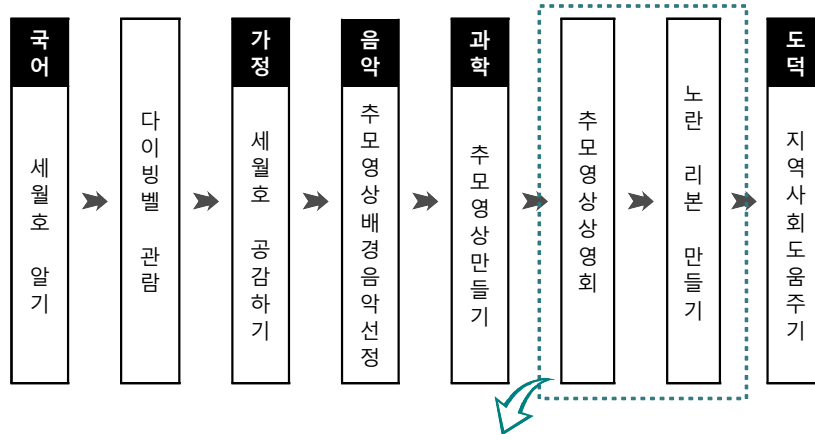
- 가. 세월호 1주기(4.16)를 맞이하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안전한 학교 문화 만들기 및 학생들의 안전 의식 고취에 힘쓴다.
- 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공감하거나 비판할 줄 아는 태도를 기른다.
- 다. 깨달음과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배움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지향한다.

2 기 본 방 침

- 가. 교과통합 프로젝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를 교사 및 학생 모두가 공유하여 진지하게 임한다.
- 나. 관련 교과 담당교사들이 해당 일정을 진행·지도한다.
- 다. 상영회 당일 학생 이동 시에는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라. 활동이 끝난 후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포트폴리오화하여 정리한다.('토요체험 학습과제'와 연계하여 진행)
- 마. 사후 평가를 통해 이후 학교 계획 및 교육과정에 발전적으로 반영한다.

3 세 부 추 진 계 획

- 가. 주제 : 416.304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며'
- 나. 통합 과목 : 국어, 가정, 음악, 과학, 도덕
- 다. 대상 : 1학년 8개 반 213명
- 라. 세부 활동 계획



일시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7교시
장소	장곡중학교 다목적실(5층)
방법	1. 반별 UCC 작품을 함께 상영한다. 2. 상영이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노란 포스트잇에 적는다. 3. 아이들의 이야기가 적힌 노란 포스트잇으로 대형 노란 리본을 만든다. 4. 대형 노란 리본은 2층 복도에 게시한다.

5. 교과 세부 활동 내용

교과	수업 내용
국어	• 세월호 관련 인터뷰, 기사, 글 등을 듣거나 읽고 이를 요약하는 활동을 통해 세월호에 대해 이해하고 사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과학	• 모둠별 주제를 주고 각 주제에 맞는 글과 그림을 넣어 추모 영상을 만든다.
가정	• 세월호와 관련하여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공감해 보고, 공감을 통한 자신만의 실천 방안을 고민한다.
음악	• 추모 영상에 어울리는 곡 선정하기
도덕	• 지역사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 계획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도움주기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4 과 목 별 활 동 지

1 국어 활동지

즐거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단원	[1학기책] 2. 잃기랑 쓰기랑		
소단원	(1) 이야기를 읽어요		

416.304 프로젝트

● 인터뷰를 듣고 요약하는 활동을 해 보자.

1. 인터뷰를 들으며 메모해 보자.
2.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서 말해 보자.
3.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 다음 글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해 보자.

어느 날 삼백 명이 넘는 영혼들이 느껴졌어요
— 단원고 2학년 8반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 씨 이야기 —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 (중략) ... 저만 빼놓아지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창 슬픔에 젖어 있던 무렵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딸과 아들을 잃은 부모를 만났어요. 그분이 고맙게도 위로를 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 당시에 나는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남의 얘기였고 나와 먼 얘기였는데 이렇게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껴안는다는 거 그 전에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모른 채하고 살았던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로 잘못된 게 있어요. 강정마을 주민들, 쌍용자동차 해고자들... 휴, 그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저희는 뭐 하고 있었나요? 전혀 생각을 안 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나만 보람 있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거였지.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힘든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義)를 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여기서 터지자마자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그래요. 요만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불안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나이 들고... 그렇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저 아이도 위험에 맞닥뜨릴 수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큰애에 대한 슬픔이 너무 커서 분향소에서도 큰애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분향소에 가면 무게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버티내질 못하겠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잃은 마음이 커서 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아들을 두고 미사 드리고 했어요.

11월을 상당에서는 위령의 달이라고 해요. 죽은 사람들을 위한 달이에요. 천대사(全大赦)는 죽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그대로 전해져서 영혼이 편해진다고 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아들뿐 아니라 삼백 명 넘는 다른 영혼들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구나.' 세월호로 희생된 영혼들을 위한 미사를 드렸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에 꿈을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즐거운 모습으로 단체사진을 찍는 꿈이었어요. '아, 그래. 그 사람들이 천대사를 받았구나' 싶었지요. 4·16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가족의 중요성,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소중함, 몰랐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천하간 했구나. 우리 아이들이 희생한 댓가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처 : '금요일엔 돌아오렴' 중에서]

① 의(義) :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

4. 위 글을 요약해서 말해 보자.

5. 말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즐거고 영목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단원	[1학기책] 2. 일기랑 쓰기랑		
소단원	(2)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416.304 프로젝트

1. 신문 기사는 보도를 전제로 하는 글이다. 그렇다면 신문 기사는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할까?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 보자.

- 다음을 읽고 활동해 보자.

길잡이

세월호 참사를 전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 초기 '전원 구조' '선내 진일' 등 각종 잘못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급히 재난보도에 대한 글쓰기 원칙을 발표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언론 보도의 모습에서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은 후였습니다. 속보 경쟁을 벌이기보다 정확성을 우선시하며,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재난보도가 필요합니다.

기획 · 편집 김영우 기자

핵심어

재난 보도 준칙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재난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근접 취재나 인터뷰 등을 자제하고, 재난 보도 취재와 보도 시 속보보다 정확성을 우선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중시하며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복구를 돕는다." 등 취재 영역, 보도 영역에서 언론인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일렬음.

<한겨레> 기사 중에서

2. 교과서 69쪽의 <요약 방법>을 참고하여, '길잡이' 부분을 요약해 보자.

3. '재난보도 준칙' 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즐거고 영목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단원	[1학기책] 2. 일기랑 쓰기랑		
소단원	(2)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416.304 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며

- 다음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해 보자.

2014년 4월 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국가적 재난'이었지만, 저널리즘 역사에도 남을 '재앙'이었다.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는 취재진들의 태도와 반복된 오보① 등으로 인해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이는 언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참사를 보도한 언론인들의 230쪽짜리 '보고서 반성문'이 나왔다. 지난 5일 방송기자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보도, 저널리즘의 침몰' 연구보고서 발간을 알렸다. 230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당시의 세월호 보도 행태를 '대한민국 재난방송의 민낯'이라는 단어로 규정하며 "이번 연구보고서는 대한민국 방송저널리즘이 두 번 다시 침몰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과 다짐의 소산"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전문구조' 오보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발아쓰기 보도'라고 규정했다. 이런 성향은 취재자들이 직접 적은 취재 후기에서도 드러난다. SBS의 한 기자는 '기자라는 특권을 포기해 죄송하다'라는 글에서 "기자에게는 '질문'이라는 특권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배웠다"라며 "당시 진도체육관에서 해경 발표에 대해 '현재 물 속 구조인원은 몇 명이나' '실제 수중 수색 시간은 얼마나' 등을 물었어야 했다"라고 반성했다.

그러나 당시 보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던 '본질 희석식 보도(핵심 사항이 뉴스에서 축소 보도되는 경향)'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일 타결된 '세월호 특별법' 합의 보도에서 MBC는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를 제목으로 뽑으며 이를 주요하게 다뤘다. 세월호 유가족 유경근(고 유예은 양 아버지) 씨는 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문구조 오보에서 시작해 이제는 '대입특례입학'이나, 교묘하게 가족들을 매도②하는 MBC"라고 적었다.

연합회는 참사보도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 9월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등 5개 단체가 주관해 제정한 '재난보도준칙'을 꼽았다. 그러나 "방송사와 기자들이 스스로 충실히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보고서 제작에 참여한 김호성 YTN 기자는 이에 대해 "(준칙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며 "현장 기자들보다 데스크가 먼저 책임을 가지고 (준칙을) 지킴으로써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애 기자, <오마이뉴스> 2015.01.07

날 말 풀이

- ① 오보 :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잘못 알립. 또는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
- ② 매도 : (사람이 무엇을 나쁜 것으로) 심하게 몰아세우다.

1.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교과서 69쪽의 <요약 방법>을 참고하여, 위의 각 문단을 한 문장씩 요약해 보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단원	[1학기책] 2. 일기랑 쓰기랑		
소단원	(2)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416.304 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려

• 다음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해 보자.

김순진 씨(41)는 ‘4·16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 단장으로, 유가족의 구술①을 모은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의 기록자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녀는 9년째 경기도 안산 선부동에서 산다. 이 동네에서만 단원고 학생 70명이 희생됐고, 그녀가 사는 아파트로 좁히도 15명이다. 김씨는 사고 첫날 진도 팽목항으로 가는 버스를 향해 가슴을 움켜쥐고 떠는 단원고 학부모들을 목격했다. 그날은 동네에 침묵이 내리는 걸 온몸으로 느꼈다.

김씨는 르포② 작가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 평전을 쓰고 삼성전자 노동자를 인터뷰했다. 사회에서 고통 받는 개인의 이야기를 글로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는 달랐다. 현장에 갔지만 글을 쓸 수가 없었다. 아이들 250명이 포함된 수백 명의 영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도망치기도 했고,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가족 곁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하나 둘 유가족을 만났다. 책에 실린 13명 중 김씨가 기록한 유가족은 2명이지만, 김씨는 30명이 넘는 유가족을 인터뷰했다. 인터뷰 한 번에 하루 이들은 묻지 못했다. 녹취③를 볼 때도 10분마다 쉬곤 했다. “다른 작업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가능했는데 이런 거리두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같이 아픈 상태에서 기록했습니다.”

책은 부모들이 겪은 아픔을 생생히 전달한다. 아이의 이름이 생존자 명단에 있다가 실종자 명단으로 가기를 세 번 반복하는 걸 지켜봐야 했던 경험, 유실④ 방지 조치를 요청한 이틀 후 아이가 첫 번째 유실된 시인으로 올라온 일, 아이 얼굴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5분의 1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라고 말하던 과학수사대...

...중략...

부모들 삶의 유일한 원동력은 아이 얘기였다. 우리 애가 이랬어, 하고 얘기하면 애너지가 조금 생기는 듯했다. 김씨가 한 일은 그 애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는 것이었다. 팔과 자주 가던 식당에 김씨를 데려가 딸이 먹던 대로 밥을 두 그릇 대접한 아버지도 있었다.

...중략...

책에는 ‘한국 사회의 끝’을 본 부모들이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과거를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 또한 생생히 담겨 있다. “사회활동가, 안전교육 전문가가 되겠다는 분도 있고 잠수사 자격증을 따서 아이들을 구해 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아픔을 겪은 그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에 우리도 같이 서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전해원 기자, <사하> 2015.04.11.

날 말 풀이

- ① 구술 : 문서에 의하지 않고 입으로 사연을 말할.
- ② 르포 : 실제 사건에 대하여 작가의 생각을 섞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문학
- ③ 녹취 : 소리나 사물의 모습, 움직임 등을 테이프 따위의 저장매체에 담음.
- ④ 유실 : 물에 떠내려가서 없어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 몇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 각 문단을 한 문장씩 요약해 보자.

3.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 보고, 이러한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써 보자.

4.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자. (실천 가능한 것)

※ 다음 시간에는 ‘요약하기’ 수행평가를 실시합니다.

즐겁고 영목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1학년	반	번	이름 :
대단원	[1학기책] 2. 일기랑 쓰기랑		
소단원	(2)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416.304 프로젝트
노란 리본을 묶으세요

- 다음을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해 보자.

인구 3만8000명 남짓인 독일 중부의 소도시 할테른 암제는 깊은 총격과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 3월 24일 프랑스 알프스 산악에 추락한 독일 항공사 저먼윙스 소속 A320 항공기의 승객 가운데 이 도시에 사는 학생 16명과 여교사 2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항공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던 중이었다. 승객 144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할 부분]

사고 발생 뒤 첫 40시간 동안, 독일 정부는 매우 기민하게 움직였다. 저먼윙스 항공기가 추락한 시각은 3월 24일 오전 10시 53분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소식을 확인하자마자 그날 오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시민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는 동시에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연방 내무부는 전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조기 계엄을 지시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곧바로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한 뒤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과 함께 사고 현장인 알프스 산맥으로 날아갔다. 다음 날인 3월 25일에는 메르켈 총리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총리와 함께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정부가 유가족과 깊이 연대^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독일 정부의 경우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곧바로 위기관리 대응팀을 구성한다. 이 조직이 시행하는 '위기관리'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규명이고, 진상 규명만큼 중요한 다른 하나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랑하는 가족과 갑작스럽게 이별한 유가족들의 쇼크 상태를 치유하고 굳건한 연대감을 표시함으로써 그들의 정신적 안정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다.

이번 참사에서도 독일 정부는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신치료사 60여 명을 동원했다. 특히 사고 현장의 유가족들과 할테른 암제에 정신치료사들을 집중 배치했다. 주 검찰은 '알펜'이라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시신을 확인하는 작업에 200명이 넘는 조사관을 투입했다.

독일에서 대규모 참사에 대한 추모 행사는 전국적인 규모로 거행된 뒤 지역 단위에서 순례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사례로 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 시에서 발생한 음악 축제 '러브 퍼레이드' 참사와 관련된 추모를 들 수 있다. 이 사고는, 수용 인원 25만 명 규모의 행사장에 14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밀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21명이 압사하거나 추락사고로 541명이 부상당했다. '러브 퍼레이드' 참사에 대한 추모 행사는 사고 발생 직후 전국에서 이루어진 뒤 뒤스부르크 시 당국이 주관하고 있다. 시 당국은 2010년 사고 현장인 옛 화물차량 정거장에 입방체 유리로 만든 추모비를 세웠다. 2012년에는 뒤스부르크 시장이 목련나무 21그루를 사고 현장에 심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이어 2013년에는 시가 다시 사고 현장에 660㎡ 규모의 공터를 확보해 희생자 추념^② 조각을 건립했다. 또한 '대중 공황장애 구조협회'를 설립해 유가족들을 돌보고 있다.

남정호 편집위원, <시사in> 2015.04.11.

남 말 풀이

- ① 연대 : 한 덩어리로 서로 굳게 뭉침.
- ② 추념 : 죽은 사람을 생각함.

즐겁고 영목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 [요약할 부분]의 각 문단을 한 문장씩 요약해 보자.

- 이 글 전체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쓰자.

평 가 기 준		채점 기준	배점	점 수
① 글 전체를 잘 요약하였는가?		5항목 만족	10	
②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4항목 만족	9	
③ 비문이 없는 자연스러운 문장인가?		3항목 만족	8	
④ 표기법 오류는 없는가?		2항목 만족	7	
⑤ 적절한 문장인가?		1항목 이하	6	

2 영어 활동지

1학년 1학기 활동지 9 - Don't Forget Sewol Ferry Disaster

Number&Name:

Remember 0416

April 16, 2014 We promised we would not forget and we should remember. [In a year now in the spot where the Sewol ferry sank] Our students' precious dreams stopped in the cold sea. 295 people were drowned and 9 people are still missing. Do you still keep the promise? [2nd year's class at Danwon highschool] We will remember the dreams of the students did not come true. We will continue to remember to actualize their dreams in our hearts. [Pangmok port in Jindo island] We will remember as the yellow color of the ribbons fades, the pain of the tragedy will be more deeply etched in our hearts. We will not forget our students' dream and safety forever.


<https://www.youtube.com/watch?v=t3Ll-XfbdyM>

promise		actualize	
precious		fade	
drowned		pain	
missing		etched	

1. 영상에서 무엇을 기억할 것이며 무엇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는지 밑줄을 긋고 해석해 봅시다.

2. Let's make a small phrase(작은 문구) for the Sewol ferry memorial.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것인지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In English] I will remember _____
	[In Korean]
	[In English] I will not forget _____
	[In Korean]

3. A4용지에 모둠원들의 다짐을 영어로 적어보자.

One small movement can lead to big miracles.

3 과학 활동지

혁신학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p>416.304 PROJECT 노란 리본을 묶으며</p>	416.304 project - 노란 리본을 묶으며	1학년 ()반
	과학 시간 활동지	()번 ()모듬 이름 :

1. 단 한 명을 기억할 수 있다면

1-①. 나와 비슷한 꿈을 갖고 있었던 누군가의 이야기 찾기 : <http://0416.hani.co.kr/>

 박준형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이준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안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이준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이준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이준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이준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이준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부 화학공학 전공 "꿈은 이루어진다"	

1-②. 그 한 명에게 간단한 한 줄의 편지 쓰기

2. 내가 할 수 있는 무엇

<눈먼 자들의 국가>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평론가, 학자들이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써내려간 글들이다. 책은 얇지만 진실과 슬픔에 관한 글들은 무겁다. 웹툰 작가들은 "세월호 진실 규명에 함께 합니다"라며 각자 그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웹툰을 공개했다. 음악가들은 추모곡을 만들어 발표했다. 잊지 않는 하나의 소리로 세월호의 희생자들과 우리를 위로하려는 것이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교사들도 있다. 2014년 릴레이 단식으로 유민아빠의 힘든 노력을 지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함께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읽고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만든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인증샷 릴레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우리들은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4 과학 활동지

혁신학교 더불어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나눔과 소통을 통해 성장하는 1학년

가정 1학년 1학기	반	번호	이름
대단원: 청소년의 이해	소단원: 청소년의 발달		
교과통합수업: 416304프로젝트	📌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월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1.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2.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용어 중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에 대해 찾아보자.

내가 그 사람이라면...

1. 내가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이유는 무엇이었을지 이야기해보자.

	행동	이유
희생자		
희생자의 부모		
생존자		

2. 그렇다면 나는 1년을 보고 잊혀 지지 않을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5 음악 활동지

혁신학교 즐겁고 행복한 배움의 공동체

음악 ⑤	1학년	반	번호	이름
대단원: 마음을 전하는 음악		소단원: 416 304 프로젝트		

1. '내 영혼 바람뒀어', '천 개의 바람이 되어' 를 불러보고 그 노래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봅시다.

2.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3.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찾아봅시다.

제목 :

가사의 내용(가사가 없을 경우 음악 속에 담긴 의미) :

이 곡을 선택한 이유 :

4. 우리 반 UCC 속에 들어갈 배경음악으로 가장 적합한 곡을 골라봅시다.

5 추모 영상 상영회 활동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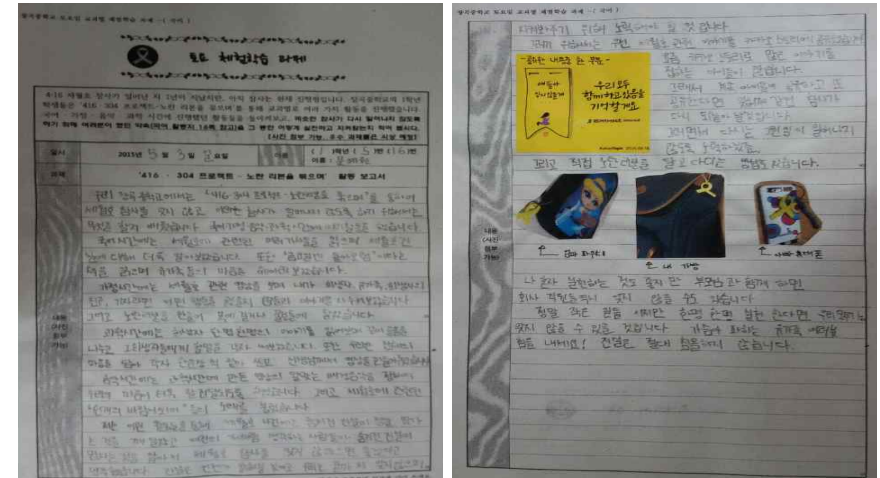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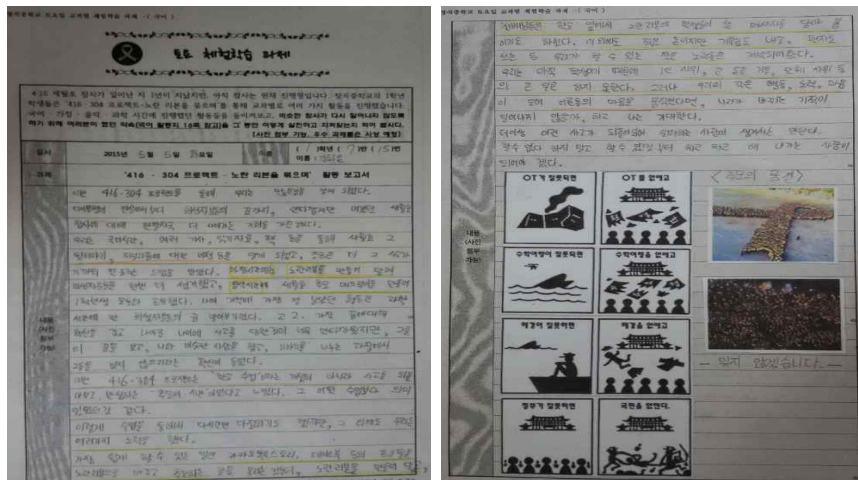
1 학생들이 제작한 추모 영상 중에서



2 추모 영상 상영회



3 토요 교과별 체험학습 학생 작품 중에서



6 반성 및 평가

- 가. 1학년 아이들에 맞게 '세월호 공감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이 좋았음.
- 나. 국어 시간 행복한 책읽기 시간에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함께 독서함으로써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었음.
- 다. 토요 교과별 체험학습과 연계함으로써 실천적인 부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점이 우수함.
- 라. 4월 초에 협의 시작. 프로젝트 협의의 시작이 늦어서 급박하게 진행되긴 했지만 교과 간 긴밀한 협조로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로 마무리됨.
- 마. 2월 교육과정 재구성 협의회 때 세월호 프로젝트를 학년 교과통합 프로젝트로 정착시킬 필요 있음.